'나'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

☞ 19면에서 계속

라 이거죠. 누구든지! 그러고 돈이 아주 없고 생길 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돈이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스님네들이 마음을 내서 관하기만 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냥 해줘라 이겁니다. 이것이 근본,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보살이 하는 일이죠. 보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지어놓은 보살은 산하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하대지의 모든 생명들을 키워내고 살려내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머리에 요만한 부처님을 이고 있는 거 보셨죠?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불종자, 즉 말하자면 종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다, 하늘이다 이겁니다. 하늘, 관세음, 땅, 땅에서 일체

사랑하되 집착 말라

만물만생을 길러내라, 돌봐라, 이런 책임을 가진 거지. 누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게 아니죠. 그러고 남자는 남자대로 있는 것만도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그 찰나찰나 화하는 모습 없는 모습으로 그냥 화해서 자꾸자꾸 딴 걸로다가 화하지만은 공부 못하는 우리네들 보면 죽으면은 남자가 여자로 다 됐다가 여자가 남자로 됐다가 또 축생으로도 되고 이러는데 뭐 한 생 남자로 되고 여자로 되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예전부터 아주 그런 게 있거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늑대가 다니고 여우가 다니고 그랬어. 그렇지만 먹을 테면 먹고 허, 맘대로 해라. 딱 그 걸 뭐라고 말을 할까. 지금도 그래. 그런 거 딱 한가지 있어. 가리지 않는 거. 죽음을 가리지 않는 거. 나 죽는 거를 가리지 않고 버린다면 아무 것도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것도 없고 이거 된다 저거 된다 할 것도 없고 이거 되게 해주쇼 할 것도 없어. 잘살게 해주쇼 이럴 것도 없고 잘 먹게 해주쇼 이럴 것도 없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도 알게 됐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알게 됐고 인생 살아나가는 게 다, 축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모두가 죄라면 한가지 모르는 게 죄구나, 달리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죄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항상 껍데기의 노예가 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구르고 또 구르고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은 스님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도들도 벗어나지 못해. 신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불쌍함을 어떡하냐구.

조금 자라면은 잡혀 먹히지만은 삼분의 일은 사는 걸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짓으로 알지 마시고 쉴 사이 없이 지구가 돌아가고 그러는 것도 한 발짝도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돌아가는 거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돌아가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와짝 벗어버릴래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벗어나서 남도 전부 살릴 수 있고 나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산 사람들이 로켓를 쏴서 명왕성으로 쏴도 명왕성에 들어가지도 못해. 다른 혹성에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어떻게 하고 지내는 집인지 그것도 모르잖어. 그러니 우리는 벗어나는 수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십 년 만큼씩 관찰을 해. 마음공부 한 사람들이 문패도 없고 번지수도 없는 데를 잘 찾아다니고 잘 보고 또 거침없이 찰나찰나 드나들 수 있나. 그래서는 탁탁 그 위서 쓰이게끔 돼 있거든.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많이 정말이지 불국토가 돼서 사람으로 살던 형상이 그대로 준수하게 빠지는 거죠. 예전에는 생물들이 모두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형태를 몰라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형태를 보고서 어떻게 하고 사나 어떻게 생겼나 그거 보느라고 우리 집을 구경도 오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그러고 정신력을 모두 검증을 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십리 안팎에서도 십리 안팎이 뭐야. 천리 안팎에서도 정신계로 다 알고 있어. 법망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있어도 누구누구를 다 알고 있다고. 콩나물같이 들어선 인생들을 어떻게 다 아느냐구. 그래서 화엄경에도 그랬잖습니까. 차례차례 소리를 했더라. 지금 같으면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모두가 생각하면은 말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뼈아픈 눈물이, 말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말로 할 수 없는 뼈아픈 눈물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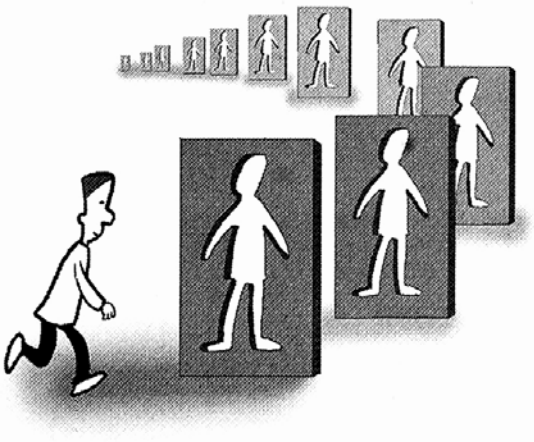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착 두지 말고 물 · 바람같이 자유롭게 살라

자기가 앞장서 날뛰면 주인은 물러서 버려

부처가 되고 깨달으면 아주 화려하고 좋을 것 같다구.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밑에서부터 살아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쌍해서 스스로 건지려고 애쓰는 게 당연할 거야.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봤어야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지. 뼈아픈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거죠.

윤회의 바퀴 벗어나라

▲질문자1 (한스묘 : 혜진스님 통역) : 어떤 말로 지금 제 마음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감사의 회향을 독일지원을 대표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베를린 의대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 공부를 만나게 된 거는 일년 전부터이고, 독일지원을 만나게 된 일년 전의 그 깊은 감사가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이번에 독일 대법회에 여러 가지 독일어로 된 책을 출판하는 관계 그리고 독일 대법회 준비 차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날 난 모리츠라는 저의 아들이 독일 모든 가족들에게 포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관하고부터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해졌고 그리고 스님을 친견한 후 다섯 살 난 모리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앞에 친견을 하고 보니까 이상한 거는 로프트, 공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스님 앞에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다르냐고 했더니 그건 마치 천국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 마음이더라고 다섯 살 난 아들이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성껏 독일 대법회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신도님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오직 정성일념으로 스님 오시는 7월 대법회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마음세계를 저희들은 아직 근기가 낮아서 공부한 지가 얼마 안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 깊은 내면에서 7월 31일 대법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은 외적인 물질세계에 굉장히 부자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독일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참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7월 31일 독일 대법회에 이런 많은 방황하는 유럽의 영혼들이 독일의 정신적인 고갈상태의 그 많은 영혼들이 스님의 대 법력속에 마음의 참된 광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발원하면서 저희들 마음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일체를 둘로 보지 말자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두 번 째 가는 데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유태인 사건들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까 해요.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겉으로 빙빙 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도 또 마음 내주실 거고요. (대중박수) 감사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하하하….

▲질문자2 :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온 우주공간과 허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가득하며 그러한 에너지는 우리가 한마음 내는 대로 얼마든지 끌어쓸 수 있다라는 묘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가르침에 따라 허공의 에너지를 현실의 물질에너지로 바꿔 대구지원의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는 방편으로 권선문을 갖고 나툼의 자리인 일체의 제불자리에 연결 지을 수 있는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바른 심부름이 될 수 있을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지원 곳곳마다 불사가 있어요. 근데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몸뚱이 종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인이 하는 거죠. 몸뚱이 종이 할려면은 그건 아마 어려울겁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지만 주인이 한다. 주인이 하는데 종은 그저 부지런히 보필을 하라 이거죠. 그러고 한사람이 먹을 거라면 한공기 물이 나와요. 한사람 먹을 거니까 한 공기밖에 안나오죠. 근데 두 사람이 먹을 거라면 두 공기가 나올 거고 세 사람이 먹을 거라면 세 공기가 나올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그렇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주는 것도 모르고 오직 주인이 하는 거니까 주인이 없으면 어련히 갖다가 할라구.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지, 나도 여기 지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김장할 때 바가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짓는 거지 어떻게 지어지느냐, 어떻게 지어야 이렇게 되느냐 할 것도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지 뭐가 다른 게 있어. 근데 사람들이 모두 살림을 하는데도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자기 주인이 살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다는 거야.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날뛰니까 주인은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죠. 하하하. 무슨 소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망쳐놓는데도 많았죠. 그르쳐놓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일들을 하는데 그거 전부 살아있는 생명들이야. 그래 돌로 보지 말라 이거지. 하다 못해 기계들도 돌로 보지 말라 이거야. 만약에 에너지와 에너지끼리 사랑을 한다면 말이야. 그 에너지로만 변동 없이 고정되게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고도 볼 수 없겠지만 변화가 무수하다면 정말 사랑을 하고 이걸로도 됐다가 저걸로도 됐다 맘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이지 영원한 사랑이야.

그렇듯이 그 모두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고 믿어요. 자기 자성을 말이야. 자기 몸뚱이는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바뀌지만 자기 자성은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 믿을 거는 그 놈밖엔 없어요. 그놈만 좇아서 올라가면 돼. 그리고 대구지원 짓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만약에 시자가 그걸 믿지 못하고 못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거고 믿는다면 믿게끔 돼 돌아가는 거고. 그래 나는 지원에 모두 불사를 하는데도 아무 걱정 없어. 그게 오히려 공부니까. 공부로 던져놓으니까, 뭐 내가 절 지을려고 이 세상에 나왔나.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거든. 어떡하든지 거짓하지 말고 권선문 써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예전부터 권선문 써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는 싫어했거든. 부처님이 계시면 지을 거고 없으면 못 지을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야. 알아서 해라. 너희들 마음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내 말이 편안한 말이죠. 하하하… 걱정할 거 뭐 있어. 그래 내 말이 그거야.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거고 안 계시다면 못할 거고 그러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거야.

모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좀 샛별 같은 눈으로 보게 되면 질문도 많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9년 5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0% 순수 토종 오가피
학명ACANTHOPANAX(아칸토파낙스) :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久服卽, 經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한 오가피
100% 순수 토종오가피를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진실하게 공급합니다.
허위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100% 토종진품(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 토종오가피 국내최대용량 110ml × 60포 (한박스)
■ 농장직영 국내최저가격 ₩150,000 (한달분)
서북토종오가피 농장 직영
오가피건강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080-700-5700 02)444-4194
※ 100% 순수토종오가피는 귀하의 모든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3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 : 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미 국	180원	유 럽	380원
캐 나 다	380원	러 시 아	690-770원
일 본	290원	호 주	420원
중 국	760원	뉴질랜드	420원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